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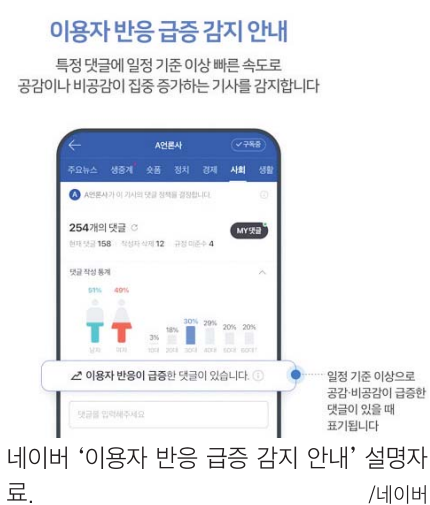
국감서 네이버 댓글조작 대응 강화·지역언론 제휴 확대 요구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 도입來 60여건 ‘이상 반응’ 탐지 대표 포털로 민주주의 수호 책임

지역뉴스 소비자에 균형정보 제공 뉴스제휴촉 구성 시 지역인사 포함

2025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댓글 여론조작 대응 강화와 지역언론 제휴 확대 요구가 잇따랐다. 네이버는 댓글 급증 자동 차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정치 뉴스 댓글 기본 비활성화도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4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달까지 60여 건의 ‘이상 반



네이버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안내’ 설명자료. /네이버

응’을 탐지했다. 이는 특정 세력이 외부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특정 댓글로 이용자들을 유도해 공감·비공감을 집중시키는 ‘좌표 찍기’ 방식의 여론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네이버는 댓글 반응이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 ‘이용자 반응이 급증한 댓글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해당 댓글을 자동 비활성화하거나 정렬 기준을 최신순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회사는 정치 분야 기사에 한해 기본적으로 댓글창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를 직접 선택해야 볼 수 있는 구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악성댓글지수를 도입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닫는 시스템도 추진한다.

양문석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국가 대표 포털로서 네이버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

했다.

◆지역언론 제휴 확대 요구도 이어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언론 제휴 문제도 쟁점이 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 중심의 뉴스 생태계 속에서 지역 뉴스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중심의 제휴 구조를 고집한다면 네이버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고정된 심사위원 구

성에서 비롯된 편향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00~500명 규모의 위원 풀을 운영하고, 심사 때마다 무작위로 50명을 선발하는 ‘배심원제’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또한 “정책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월 1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심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실명·국적 인증 논의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 뉴스 댓글에 대한 국적 인증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공직선거 기간만이라도 내국민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는 IP 기준으로만 구분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까지 고려한 국적 기반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이노베이션 허브’ 개소 MS와 국내 산업계 AX 지원

KT 광화문 사옥에 595㎡ 규모로 마련 AX 전시 관람·맞춤형 컨설팅 제공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서울 광화문에 국내 산업계 AX(인공지능 전환)를 지원하는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KT 광화문 사옥 웨스트 빌딩에 약 595㎡ 규모로 마련된 KT 이노베이션 허브는 B2B(기업 간 거래) 고객이 AX 관련 전시를 관람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협력 공간이다.

다수의 AI가 협업해 고객 요청에 맞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KT와 MS의 AX 전문가가 기업의 업무 혁신 실현을 위한 기술적 조인과 솔루션 설계를 제안하는 컨설팅 공간도 준비됐다.

고객사는 설계된 솔루션을 최대 5일



KT와 MS가 손잡고 국내 산업계 AX를 지원한다. /KT

내 실행 가능한 시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고, 기술 실험성 검증도 가능하다.

KT AX 컨설팅 전문 조직인 ‘AXD 본부’는 KT 이노베이션 허브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실체가 있는 AX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AXD 본부는 MS 기술 전문 인력과 협업해 고객이 체험한 혁신을 산업 맞춤형 AX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풀패키지 서비스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카카오엔터, 이달 화제 신작웹툰 4종 선포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서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일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10월 화제의 신작 웹툰 4종을 공개했다. 플랫폼 대표 작가의 신작과 인기 웹소설 원작 노블코믹스가 포함돼 다양한 독자층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주인공의 꽃길에 올라타는 방법’은 누적 조회 수 1000만 회를 기록한 인기 웹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현대 판타지 세계로 환생한 ‘강나현’이 각성자 아카데미에 입학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액션과 로맨스, 유머를 조화롭게 녹여내 폭넓은 독자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천재 대장장이의 게임’은 조회 수 5000만 회를 기록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액션 판타지다. 대장

간 화재로 손을 잃은 주인공 ‘현수’가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다시 제작의 꿈을 이루며 성장하는 스토리를 그렸다. 몰입감 높은 전개와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로 공개 하루 만에 200만 회를 돌파했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의 원작자 강태경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경북궁 깊은 곳 ‘기담민원처리과’에 근무하게 된 신입 공무원 ‘정술’이 신화 속 존재들의 민원을 해결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독특한 세계관과 기묘한 분위기로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흡입력 있는 전개를 펼친다.

다음웹툰 시절부터 누적 조회 수 1억 9000만 회를 기록한 ‘홍도’의 외전이다. 본편 결말 이후 주인공 홍도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인간과 주술사, 신묘한 생물이 공존하는 세계관을 한층 깊이 있게 확장했다.

/최빛나 기자

위메이드커넥트, ‘라그나로크 유니버스’ 공동개발 착수

그라비티-갈라랩과 ‘맞손’ 제작·서비스·e스포츠 협업

위메이드커넥트는 20일 그라비티, 갈라랩과 MMORPG 흥행작 ‘라그나로크’ IP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신작 ‘라그나로크 유니버스’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각자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세대의 ‘라그나로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라비티의 IP 경쟁력 ▲갈라랩의 핵심 콘텐츠 제작 역량 ▲위메이드커넥트의 글로벌 퍼블리싱



(왼쪽부터)그라비티 박현철 대표와 위메이드커넥트 이호대 대표, 갈라랩 김현수 대표가 3사 사업 협력 계약식에 참여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

및 서비스 경험이 결합된다. 이를 통해 제작부터 서비스, e스포츠 운영까지 유

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그나로크’는 2002년 그라비티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선보인 1세대 온라인 MMORPG다.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세계관과 다채로운 직업군, 카드 시스템, OST 등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며 장기 흥행 IP로 자리 잡았다.

이후 모바일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해 ‘라그나로크M: 영원한 사랑’, ‘라그나로크 오리진’,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너레이션’ 등 다양한 시리즈를 선보였다. 각 작품은 원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대 간 팬층을 넓혀왔다.

/최빛나 기자

메타빌드, AI 복지행정 지원 솔루션 개발

NIPA 추진 과제 수행기관 선정 총사업비 30억 규모… 2년간 진행

인공지능(AI)·연계소프트웨어전문 기업 메타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2025년도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 지원 과제 공모에서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메타빌드는 복지급여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복지행정 전주기 업무를 지원하는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전국의 시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과 실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AI 복지행정 데이터 구축, AI 서비스 설계, AI 인프라·개발환경 조성에 나서고, 2026년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개인별 소득·재산·보장·자격 정보 등 약 120만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메타빌드는 자체 개발한 ‘LLaMoN(라몬) AX’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서류 자동 분석,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천, 행정담당자 업무 지원, 복지정보 통합검색 등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체감하는 AI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전성배 메타빌드 AI총괄대표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AI가 실제 행정현장에서 국민과 공무원을 돕는 실증형 프로젝트”라며 “AI 플랫폼 풀스택 제품 역량과 민관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복지행정의 AX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LG U+, 개인맞춤 강화 ‘익시오 2.0’ 공개

AI 대화 검색, 스마트 요약 등 추가

LG유플러스가 개인 맞춤형 기능이 강화된 인공지능(AI) 통화 앱 ‘익시오(i xi-O) 2.0’을 20일 공개했다.

익시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과 통화 녹음·요약, 보이는 전화 등의 기능을 탑재한 AI 통화 앱이다. 기존 익시오 1.0 버전에서는 위변조된 목소리가 지 탐지하는 ‘안티답보이스’ 기능을 추

가하는 등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강화에 중점을 뒀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개인 맞춤형 AI 기능을 더한 ‘익시오 2.0’을 선보였다. 신규 기능은 ▲AI 대화 검색 ▲AI 스마트 요약 ▲디스커버 2.0 등이다.

‘AI 대화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이전의 통화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AI에게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AI 스마트 요약’은 통화 내용을 사용자의 필요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이고, ‘디스커버 2.0’은 통화와 문자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한 AI 기능을 추천하는 안내 페이지다.

이외에 안드로이드 버전 익시오 2.0에는 고객이 피싱 위험 URL에 접속하면 이를 확인해 주의 알림을 제공하는 ‘위험 URL 탐지’ 기능과, 문자로 받은 쿠폰이나 예약일정을 알아서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AI 문자 리마인더’가 새롭게 생겼다.

/김현정 기자